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12년
3월 31일 기준

▶ 투자목표

이 투자신탁은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기업의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또한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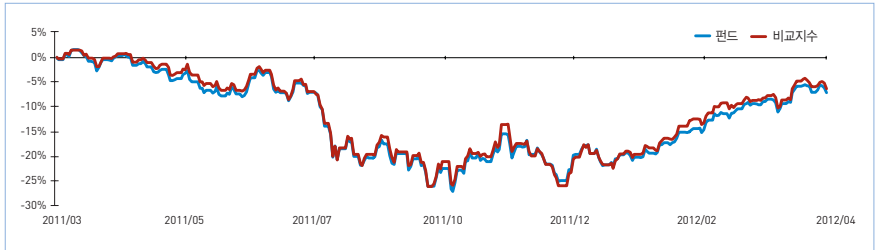
▶ 펀드개요

설정일	2008년 9월 9일
순자산규모	3,205,524,465원
벤치마크지수	MSCI AC World Financials ex Korea Hedged to KRW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 1.2% 종류 C1~C4, C-e : 없음
신탁보수	종류 A : 총보수 연 1.863% (운용 0.800%, 판매 1.0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종류 C1 : 총보수 연 2.363% (운용 0.800%, 판매 1.5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종류 C2 : 총보수 연 2.263% (운용 0.800%, 판매 1.4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종류 C3 : 총보수 연 2.163% (운용 0.800%, 판매 1.3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종류 C4 : 총보수 연 2.063% (운용 0.800%, 판매 1.2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종류 C-e : 총보수 연 2.263% (운용 0.800%, 판매 1.400%, 신탁 0.035%, 사무관리 0.028%)
환매수수료	종류 A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종류 C1~C4, C-e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펀드매니저	소티리스 붓시스 (Sotiris Boutsis)

▶ 환매지급일

- 오후 5시 이전 청구시
제 3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이후 청구시
제 4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운용성과



(단위 : %)

종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A	2.03	16.54	19.95	-7.33
C-e	2.00	16.45	19.78	-7.66
C1	1.98	16.40	19.67	-7.80
C2	1.99	16.43	19.72	-7.75
C3	2.00	16.45	19.78	-7.60
C4	2.01	16.48	19.83	-
비교지수	2.04	16.79	18.98	-6.44

※단순 누적 수익률, 보수 공제 후 세전 수익률 기준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포트폴리오 현황 | 순자산총액기준

자산구성	(%)	주요 보유종목*	(%)
해외주식	93.95%	CITIGROUP INC(NEW)	4.63
유동자산 및 기타	6.05%	WELLS FARGO	4.40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NEW)	3.50
		CAPITAL ONE FINANCIAL CORP	3.36
		BANGKOK BANK PCL-FOREIGN REG	2.99
		SBERBANK OF RUSSIA	2.84
		UBS AG	2.84
		BANCO ESTADO RIO GRANDE SUL	2.74
		AOZORA BANK LTD	2.74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GROUP (AU)	2.57

*보유종목기준일 : 2012.01.31기준

▶ 국가별 자산배분

국가	자산배분 (%)
미국	38.66
영국	6.62
태국	6.26
일본	5.47
홍콩	5.19
인도네시아	4.68
브라질	4.45
네덜란드	4.36
스위스	3.93
호주	3.75

▶ 마켓상황

경제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거시 경제 및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제성장 및 정책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섹터에는 좋은 투자기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 마켓 부동산 관련 종목 및 보험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기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승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의 호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의 개선세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인스트러 (특정 소매유통업체가 다수의 점포를 출점하고 본부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업체) 실적 및 자동차 판매 역시 2월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력시장이 저점을 지나 회복될 가능성을 보인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성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유럽 역시 LTRO를 통한 양적 완화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하는데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의 부채문제 및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 시행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유럽중앙 은행은 유럽 주변국 문제를 완화하고자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섹터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역사적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진행될수록 더 업종대비 금융 업종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의 등락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현지통화 및 월말기준.